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259-293  
<https://doi.org/10.29212/mh.2024..130.25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제1차 세계대전 협력 배경에 대한 검토

- 사회주의적 '선의'에 입각한 전쟁 협력논리 재조명 -

고용준 | University of Delaware 박사수료

- 목 차
1. 1914년 8월 4일: '성내평화'의 탄생과 제2인터내셔널 평화주의의 종식
  2. 왜 사회주의자들은 전쟁 수행에 협력하였나?
  3. 기존의 해석: '오관과 배신' 또는 '체념과 수동성'
  4. 전쟁 협력의 길: 1914년 7~8월의 선택과 그 과실
  5.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찬전 논리 분석
  6. 협력의 결과: 사회주의계의 분열과 반성 없는 복귀
  7. 결론에 대신하여: 본고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초 록** 본고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반전 입장을 고수하여 온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전쟁 수행에 협력하게 되었는가를 기존 영·미 학계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조명하였다. 다수의 연구는 사회주의적 이상에 대한 ‘오관과 배신’ 또는 급격한 정세 변화에 따른 ‘체념과 수동성’의 맥락에서 이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에 동참하게 된 배경에는 노동계급 일반의 민족주의적 주전론에 휩쓸렸든지 제국정부의 탄압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동조했다는 ‘소극적’인 이유에 더해, 사회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장차 사회주의 실현을 앞당길 촉매제로 전쟁을 활용코자 하였다는 ‘적극적’인 이유도 작용하였다. 본고는 당시 독일 사회주의 세력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던 사회민주당과 자유노동조합연맹의 지도자들이 1914년 8월 이후 전쟁 수행에 협력한 논리를 ① 차르 전제정치에 맞선 사회주의 가치 수호, ② ‘유산자’ 대영제국에 대한 ‘무산자’ 독일의 투쟁, ③ ‘전시 사회주의’ 달성을 통한 노동계급의 권익 향상, 그리고 ④ 세계혁명에 대한 기대라는 네 가지 범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전시 협력을 정당화해 주었던 사회주의적 ‘선의’는 역설적으로 전후 사회주의 세력의 분열과 나치즘의 대두로 귀결되었다. 1914년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선택이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과 제3제국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궤적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유럽사를 풍미한 ‘혁명’과 ‘전쟁’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재조명될 가치가 있다.

주제어: 제1차 세계대전, 독일 사회민주당, 성내평화, 전시사회주의

(원고투고일 : 2024. 1. 7, 심사수정일 : 2024. 2. 20, 게재확정일 : 2024. 2. 22.)

## 1. 1914년 8월 4일: ‘성내평화’의 탄생과 제2인터내셔널 평화주의의 종식

1914년 8월 4일 오후 1시, 베를린 궁(宮)의 백실(白室: Weiße Saal)에 모인 독일 제국의회 의원들은 황제 빌헬름 2세(Kaiser Wilhelm II)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 군복을 착용한 황제가 레르헨펠트 백작(Graf von Lerchenfeld)의 소개로 입장하여 전쟁에 임하는 제국의 각오를 엄숙하게 표명하였다. 이어 그는 “짐에게는 ‘독일인’ 외의 어떠한 당파도 보이지 않느니라 (Ich kenne keine Parteien mehr, Ich kenne nur noch Deutsche)”고 발언한 뒤, 각 정당 지도자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당시 백실에 독일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사민당’) 소속 의원은 없었지만, 황제는 참석한 의원들 중 한 명을 사민당 지도자로 착각하고 각별한 애정을 담아 그의 손을 잡았다. 이어 프로이센 국가 ‘승리의 화환을 너에게(Heil dir im Siegerkranz)’가 제창되고 빌헬름 2세는 퇴장하였다.

황제가 이석하자 의원들은 제국의회 의사당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속개하였다. 사민당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의장 요하네스 캠프(Johannes Kaempf)와 제국정부 수상 테오발트 폰 베틀만-홀베크(Theobald von Bethmann-Hollweg)의 연설이 이어졌다. 베틀만-홀베크는 전 독일의 단결을 촉구하는 대목에서 사민당 의원들을 응시하였는데, 정부 관료의 발표에 최초로 사민당 의원들 일부가 갈채를 보내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잠시 간의 정회 후 속개된 자리에서 사민당 공동원내대표인 후고 하세(Hugo Haase)는<sup>1)</sup> 러시아 전제정치의 위협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러시아 전제정치의] 이러한 위협을 축출하여 조국의 문화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이다. 차제에 사민당은 매번 강조해왔던 바를 다시금 천명하고자 한다: 위기의 시기에 조국을 버리지 않겠다. 이는 어떠한 형태의 정복전쟁에도 반대하지만, 국가의 독립과 자위권(自衛權)을 인정해 온 인터내셔널의 방침과도 합치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sup>2)</sup>

하세의 연설에 의사당 내 우익은 ‘얼음장 같이 냉담’하였으나, 좌익과 중앙에서는 열광적인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이어 제국 의회가 전시공채 모집 및 예산 책정에 관한 일련의 법안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베트만-홀베크는 금번 회기(會期)가 독일사의 성전(聖殿)에 헌정되었으며 “1914년 8월 4일은 가장 영광된 하루로 남을 것이다”라 선언하였다. 회의는 ‘민족, 조국 그리고 황제(Volk, Vaterland und Kaiser)’에 대한 만세 제창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사민당 의원들도 처음으로 자리를 지켰으며 더러는 제창에 합세하였다.<sup>3)</sup> 이 만세소리는 전쟁을 앞둔 독일제국

---

1) 또 다른 공동원내대표는 제4장에서 언급될 필립 샤이데만(Philipp Scheidemann)이었다.

2) *Verhandlungen des Reichstags: X III. Legislaturperiode. II. Session. Band 306.* (Berlin: Norddeutsche Buchdruckerei und Verlags-Anstalt, 1916): 9. 영역(英譯)된 내용을 William Maehl, “The Triumph of Nationalism in the German Socialist Party on the Eve of the First World War”,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24, No. 1(March 1952): 41에서 재인용.

3) 이상 8월 4일의 상황에 대한 묘사는 Jeffrey Verhey, *The Spirit of 1914: Militarism, Myth and Mobilization in Germany*, (Cambridge: Cambridge

에 이른바 ‘성내평화(城內平和: Burgfrieden)’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함성인 동시에, 국제사회주의(Internationale Socialiste: 이하 ‘제2인터내셔널’)가 표방하던 평화주의와, 역설적이게도 사민당 내 진정한 평화의 사멸을 알리는 조종(弔鐘)이기도 했다.<sup>4)</sup>

## 2. 왜 사회주의자들은 전쟁 수행에 협력하였나?

세계대전의 발발 직전까지만 해도 독일과 여타 유럽 국가의 사회주의자들은 제2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자본계급의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1889년 파리 창립대회와 1891년 제2차 브뤼셀 대회, 1907년 제7차 슈투트가르트 대회, 1910년 제8차 코펜하겐 대회, 1912년 제9차 바젤 임시대회 등 일련의 회의를 통해 각국 사회주의자들 간의 반제국주의·반전(反戰) 연대가 확인되었다.<sup>5)</sup> 특히 독일에서는 1914년 5월 5일 제국의회

---

University Press, 2000): 157~160에 기반하였다. 베헤이의 저술은 1914년 8월 독일 사회를 지배했던 열광적 전쟁 환영 분위기의 실상과, 그 이미지가 이후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며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독일인의 기억을 구성하였는지를 규명한 수작(秀作)이다.

- 4)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는 사민당이 ‘악취나는 송장’이 되었다 비난하였고, 사민당의 전시공채 모집 찬성 보도를 접했을 때 기사가 날조되었다 생각했던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Ilych Lenin)은 1914년 11월 14일 독일 사민당이 더 이상 국제혁명운동의 대열에 있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William Maehl, “The Role of Russia in German Socialist Policy, 1914-18”,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Vol. 4, Issue 2(August 1959): 187 참조.
- 5) 황동하, “제1차 세계대전기 독일 사회민주당의 ‘방어전쟁’과 로자 룩셈부르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1권 제3호(2014): 13~14·16~21. 이상의 대회에서도 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에 있어 입법부를 통한 반대, 청원서 제출, 대중봉기 선동, 총파업(Generalstreik) 등 다양한 방법이 중구난방으로 제기되어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전쟁에 맞선 전쟁’의 구호 아래 제국주의 국가들 간 일체의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다.

소속 사민당 의원들이 자국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며 프랑스와의 화해를 주창하였고, 1914년 6월 뮌헨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노동 조합대회에서도 국제문제가 직접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제국정부에 대한 반감은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었다.<sup>6)</sup>

이러바 ‘7월 위기(Julikrise)’가 한창 진행되던 7월 하순에도, 사민당은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의지를 다지는 한편 세르비아 사태가 격화되어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종언(終焉)이 될 것이라 경고하였다.<sup>7)</sup> 7월 29일 브뤼셀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사무국 회의에서는 1912년 제1차 발칸전쟁 시와 유사하게 세계대전으로의 비화를 막을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견해가 확인되었으며,<sup>8)</sup> 독일 사회주의의 대표적 이론가로 사민당의 고문(顧問) 역할을 수행하던 칼 카우츠키(Karl Kautsky) 역시 7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사민당원들의 전쟁 거부 입장은 너무나 자명하게 보였다고 술회하였다.<sup>9)</sup> 그런데 이로부터 닷새가 채 지나지 않은 8월 4일, 사민당이 ‘조국 방위’의 명분을 내세우며 제국정부의 전쟁 개시에 협력해 버린 것은<sup>10)</sup> 당대 비평

6) John A. Moses, “Bureaucrats and Patriots: The German Socialist Trade Union Leadership from Sarajevo to Versailles, 1914-1919”, *Labour History*, No. 30(May 1976): 2.

7) 황동하(2014): 24; Francisco Herreros, “The Dilemma of Social Democracy in 1914: Chauvinism or Social Dilemma?”, *Rationality and Society*, Vol. 15, No. 3(August 2003): 326·329. 1914년 8~9월 간에는 제2인터내셔널의 제10차 빈 대회와 제21차 세계평화대회(Universal Peace Congress)가 예정되어 있기도 했다.

8) Martin Ceadel, “Pacifism”, in Jay Winter and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f the Historial de la Grande Guerr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 Volume II: The Sta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581. 동 회의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Georges Haupt, *Socialism and the Great War: The Collapse of the Second Internationa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183~215 참조.

9) Maehl(1952): 40, Footnote 153.

가들은 물론 후세 역사가들을 당혹케 하였다. 그토록 즐기치게 전쟁에 반대해 왔던 독일 사민당이 어찌하여 세계대전에 협력하게 된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독일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 ‘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을 새로운 견지에서 접근해보려 한다. 즉 이들이 전쟁 수행에 협력하게 된 배경에는, 노동계급 일반의 민족주의적 찬전(贊戰) 여론에 휩쓸렸든지 제국정부의 탄압을 우려하여 마지못해 끌려갔다는 ‘소극적’인 이유에 더해, 당시까지 일구어놓았던 사회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장차 사회주의 실현을 앞당길 촉매제로 전쟁을 활용코자 하였다는 ‘적극적’인 이유도 작용하였음을 조명코자 한다.<sup>11)</sup>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전쟁 협력을 설명하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며, 제4장을 통해 독일 사회주의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던 사민당과 자유노동조합연맹(Freie Gewerkschaften: 이하 ‘자유노련’)이<sup>12)</sup> 전쟁에 찬성하게 되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10) 이는 전시공채 발행 거부를 선언한 1907년 슈투트가르트 대회의 결정은 물론, 1914년 8월 8일 러시아 제국의회에서 불세비키가 전시공채 모집을 반대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다. Maehl(1952): 39; Maehl(1959): 182~183; Hew Strachan, *The First World War Volume I: To Ar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15 참조.

11) 영구평화를 달성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이 그 수단으로 ‘혁명’ 내지 ‘전쟁’의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려 하는 역설은 시델도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Ceade I(2014): 582 참조.

12) 조합의 정치적 목적이나 정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부인했던 공식 입장과 달리, 자유노련은 사민당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두 조직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기구임을 주장하면서도 1906년 ‘만하임 협정’ 이후 상호 관심사안에 있어 긴밀히 협력기로 하였다. 개전 당시 사민당 소속 제국의회 의원 110명 중 45명 이상이 노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한 인사였으며 19명은 노조 전임간부 출신이었다. 역으로 자유노련 총운영위원회(Generalkommission)를 구성하는 13명 가운데 의장 칼 레긴(Carl Legien)과 부의장 구스타프 바우어(Gustav Bauer) 등 6명은 사민당 우파에 소속된 제국의회 의원으로, 이들의 의견은 사민당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두 조직의 입장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당시 독일 사회주의계의 동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

한다. 제5장에서는 이들 두 조직의 지도자들이 전쟁 수행에 협력하기로 한 ‘적극적’ 논리를 영·미 학계의 2차 문헌에 근거하여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해보겠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에 협조한 결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짚은 뒤, 제7장에서 본고의 한계와 후속 연구방향을 언급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였다.

### 3. 기존의 해석: ‘오판과 배신’ 또는 ‘체념과 수동성’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입장 변화를 가장 비판적으로 해석한 이들은 다름 아닌 여타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러시아 공산혁명의 영수(領袖)가 된 레닌은 1916년 집필한 『자본주의 최상단계로서의 제국주의』에서 특히 카우츠키의 ‘초(超)제국주의론(Ultra-imperialismus)’을 호되게 비판하며,<sup>13)</sup> 그를 위시한 독일 사민당원들이 제국주의를 은연 간에 옹호하는 ‘사회주의적 기회주의자’로 전락하였고, 자유노련의 ‘노동귀족’들은 부르주아 계층에 매수되어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레닌에 따르면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반복해 온 국제적 연대의 수사는

다. John L. Snell, “Socialist Unions and Socialist Patriotism in Germany, 1914-1918,”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59, No. 1(October 1953): 66~67 참조.

13) 카우츠키는 일체의 제국주의 전쟁을 소멸시킬 자본주의 발전의 궁극적 단계로 ‘초 제국주의’를 상정하고, 1914년 8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인터내셔널 빈 대회에 제출할 요량으로 개전 직전 수개월 동안 『제국주의론(Der Imperialismus)』을 집필하고 있었다. 그는 금융자본에 의한 평화유지의 가능성을 긍정하며, 무산자 국제주의에 기반한 기존의 전쟁관 대신 ‘방위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는데, 제국주의와 전쟁의 필연적 연계성을 포기한 이 같은 주장은 당시 독일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광범하게 퍼져 있었다. “Presentation of Kautsky—1914,” *New Left Review*, No. 59(January 1970): 39~40 참조.

결국 허언에 불과하였으며, 전쟁에 협력한 것은 이들 ‘사회-배외주의자(social-chauvinist)’들의 어리석음과 악의로부터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었다.<sup>14)</sup> 주보크(L. B. Zubok) 등 소련의 연구자들과 쿠친스키(Jürgen Kuczynski)를 비롯한 동독 학자들도 이러한 해석을 이어받아, 기회주의자들의 ‘오판과 배신’이라는 관점에서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찬전 입장을 비난하였다.<sup>15)</sup>

이보다는 좀 더 온건한 해석으로 트로츠키(Leon Trotsky)는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에 동조함으로써 무산자들의 권익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비판하였으며, 룩셈부르크는 혁명을 포기한 개량주의자들이 무산자 국제주의를 온전히 실천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였다.<sup>16)</sup> 토르페(Wayne Thorpe) 같은 최근 연구자의 경우, 제2제국의 자본주의 국가-사회체제에 안주하게 된 사민당이 사회주의의 궁극적 이상을 저버리게 된 결과가 전쟁 협력이었다고 평가하였다.<sup>17)</sup>

14) Vladimir Ilych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남상일 譯, 『제국주의론』, (서울: 백산서당, 1986): 35~38 · 123~128 · 145~160; Herreros (2003): 327. 독일 사민당의 전쟁 협조에 대한 레닌의 비판으로는 Lenin, *Collected Works*, 양효식 譯, 『레닌 전집 제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파주: 아고라, 2017) 中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기회주의와 사회배외주의에 대한 노동자 당의 임무에 대하여”; “사회배외주의자의 궤변”; “사회배외주의와의 투쟁에 대하여”;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전쟁에 관한 독일 기회주의의 주요 저작” 등의 논설을 참고.

15) Haupt(1972): 183, Footnote 6; Herreros(2003): 327~328. 쿠친스키는 또한, 사회주의의 성장세를 막기 위해 전면전도 불사하고자 했던 제국정부가 사민당을 의도적으로 기망(欺罔)한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Maehl(1959): 178 · 181 참조.

16) Herreros(2003): 328.

17) Wayne Thorpe, “Keeping the Faith: The German Syndicalists in the First World War”, *Central European History*, Vol. 33, No. 2(2000): 206~207 · 216. 대다수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카우츠키 류의 사민당 중도파가 사회주의자들의 ‘변절’을 야기하였다고 비판하지만, 맥네어(Mike Macnair)와 리(Lars T. Lih) 등의 연구자는 레닌의 볼셰비키와 카우츠키의 사민당 중도파 간 이념이 그렇게 대립적이지 않았음을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다. Mike Macnair, “Die Glocke or the

한편 스넬(John Snell), 맬(William Maehl), 레베리오(Madelaine Reberieux) 등의 비(非)공산권 연구자들은 독일 사회주의자들 간에 만연해 있던 배외적 성향에 유의하였다.<sup>18)</sup> 특히 맬은 사민당을 ‘국제사회주의의 햄릿(Hamlet of international socialism)’에 비유하며, 이들이 제2제국과 너무 깊게 연계되어 있던 나머지 전쟁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① 당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을 강조하던 사민당이 당시 분출하던 대중적 주전론(主戰論)의 열광에 휩쓸린 측면과 ② 러시아 전제정치가 제2의 ‘틸지트 분할’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언급하면서, ③ 사민당의 전쟁 협력노선은 국가방위의 의무가 받아들여진 1912년 첼니츠 당 대회와 당내 좌파들이 제시한 전시 총파업 및 국방세 거부 결의안이 부결되었던 1913년 예나 대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보았다.<sup>19)</sup>

다음으로 커비(David Kirby)는 개전을 앞두고 사회주의자들 간에 만연한 ‘체념과 수동성(resignation and passivity)’의 분위기에 주목하였다. 그는 제국정부의 검열과 애국주의적 정열이 쇠도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무산자들의 반격(counter-offensive)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무력감과 망설임의 빈틈을 대중적 애국주의가 파고든 것이라 지적하였다.<sup>20)</sup> 한편 치커링(Roger Chickering)은 사민당과 자유노련 지도부가 제2인터내셔널의 방침 및 내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협조함으로써

---

Inversion of Theory: From Anti-imperialism to Pro-Germanism,” *Critique*, Vol. 42, No. 3(2014): 354; Lars T. Lih, “The New Era of War and Revolution: Lenin, Kautsky, Hegel and the Outbreak of World War I,” in Alexander Anievas (eds.), *Cataclysm 1914: The First World War and the Making of Modern World Politics*, (Leiden: Brill, 2014): 366~412 참조.

18) Herreros(2003): 328.

19) Maehl(1952): 32~39; Maehl(1959): 177~183.

20) David Kirby, *War, Peace and Revolution: International Socialism at the Crossroads 1914-1918*, (Aldershot: Gower, 1986): 27 · 39; Herreros(2003): 328.

제국정부의 억압을 완화시키는 편이 당원과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되리라 판단하였다고 추정하였다. 그는 또한 계층·지역·이념적으로 균열되어 있던 ‘이익사회(Gesellschaft)’적 독일제국이 전쟁을 통해 ‘공동사회(Gemeinschaft)’화되는 과정에서, ‘사면(四面)의 적(Feinde ringsum)’에 맞서기 위해 그간 ‘국적(國賊: Reichsfeinde)’으로 지탄받던 사회주의자들이 국가적 연대의 대상으로 포섭되었음을 포착하고 있다.<sup>21)</sup> 이러한 그의 분석은, 찬전 사회주의자들이 ‘오판과 배신’이라는 악의적 사유와 ‘체념과 수동성’이라는 피동적 상황을 뛰어넘는 나름의 목적의식을 갖고 전쟁에 협력했음을 밝혔지만 이들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레고리(Adrian Gregory)의 연구 역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적 광풍(狂風)에 휩쓸려 전쟁을 지지했다는 기존의 해석 대신 그들이 갖고 있던 사회주의적 지향이 전쟁 협조의 배경에 놓여있음을 언급했으나 상세한 해명을 결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sup>22)</sup>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전쟁 동참에 보다 적극적인 이유가 개재되어 있음을 밝힌 독보적인 연구로 맥네어의 성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1915~1919년 발간된 『경종(警鐘: Die Glocke)』지를 분석하여, 파울 렌쉬(Paul Lensch), 하인리히 쿠노(Heinrich Cunow), 콘라트 해니쉬(Konrad Haenisch) 등 반제국주의 입장을 고수하며 전쟁에 반대하였던 사민당 좌파 세력이 1914년 10월 이후 전쟁 수행에 찬성하게 된 논리를 설명하였다.<sup>23)</sup> 맥네

21) Roger Chickering, *Imperial Germany and the Great War, 1914-191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8·15~16·152~154.

22) Adrian Gregory, *A War of Peoples 1914-191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3~24.

23) 이른바 ‘렌쉬-쿠노-해니쉬 그룹(Lensch-Cunow-Haenisch Gruppe)’을 범주화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지겔(Robert Sigel)은, 이들의 저작을 검토한 결과 렌쉬는 8월 상순, 쿠노는 10월 중순, 해니쉬는 10월 상순부터 찬전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추정하였다. Macnair(2013): 369 참조.

어에 따르면 이들은 제국주의의 불가피성에 관한 당내 논쟁을 거치며, 제국주의의 성장과 세계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사회주의의 도래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적극적’ 대처론을 가다듬었다.<sup>24)</sup> 그의 연구는 전쟁에 대한 협조가 사회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리라는, 통념과 상반되는 인식이 실제로 존재하였으며 ‘렌쉬-쿠노-해니쉬 그룹’이 그 논리를 따라 전쟁을 지지하게 된 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강점을 지닌다. 본고 역시 독일 사회주의자들에게 비춰졌던 전쟁의 사회주의적 의의 내지 효용성의 시각에 주목하여 그들의 찬전 논리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바, 다음 장에서는 그 사전작업으로 사민당 및 자유노련이 개전 초기 전쟁에 협력하게 되는 경로와 이로써 얻어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추적해보겠다.

#### 4. 전쟁 협력의 길: 1914년 7~8월의 선택과 그 과실

##### 가. ‘7월 위기’ 시의 반전운동

주지하다시피 1914년 7월 중순까지만 해도 프란츠 페르디난트(Franz Ferdinand von Habsburg) 황태자 부처(夫妻)의 목숨을 앗아간 사라예보의 총탄이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 이는 없었다. 황태자 부처의 암살 다음날인 6월 29일 열린 사민당 집행부 회의에서도, 하세만이 개전을 우려하였을 뿐 별

24) Macnair(2014): 353~375. 맥네어는 이들 사민당 좌파와 러시아 볼셰비키들이, 제국주의의 성장과 세계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정세인식 면에서 궤를 같이 하였음에도 ① 그 세계전쟁이 즉각적인 계급혁명으로 이어질지 ② 그리고 사회주의 실현 단계에 있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사회주의화(socialisation)’ 중 무엇이 선행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 차이로 각기 다른 대응을 보였다고 분석하였다.

다른 위기의식은 감지되지 않았다. 사민당 총서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Friedrich Ebert)와 공동원내대표 샤이데만, 헤르만 몰켄부어(Herman Molkenbuhr) 등 핵심간부들은 예정된 하계휴가를 떠났고, 레긴을 위시한 자유노련 수뇌부는 7월 27일 개최될 벨기에 노동조합대회 참관 차 브뤼셀로 이동하는 등 ‘7월 위기’를 앞둔 독일 사회주의계는 오히려 평온한 듯이 보였다.<sup>25)</sup>

그러나 7월 23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정부가 세르비아에 최후통첩을 제시하고 25일 총동원령을 발포하여 ‘7월 위기’가 개시되자, 사민당은 오스트리아-헝가리와의 동맹 무효화를 주장하며 독일의 전쟁 연루를 막고자 했다. 여타 지도자들이 부재한 가운데 이들의 직무를 대행하던 하세가 전쟁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sup>26)</sup> 사민당 집행부는 세르비아에 대한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최후통첩을 비판하는 한편, 7월 25일 독일의 참전에 반대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계급의식에 투철한 독일의 무산자들은 전쟁광들의 범죄적 행각을 인류와 문명의 이름으로 맹렬히 규탄하는 바이다. 무산자들은 독일 정부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평화를 유지토록 할 것이며, 만에 하나 수치스러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결코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오스트리아 지배계층의 탐욕과 제국주의적 이윤 추구를 위해 독일 군인의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는 안 될 것이다.”<sup>27)</sup>

25) Harry J. P. Harmer, *Makers of the Modern World: Friedrich Ebert - Germany*, (London: Haus Publishing, 2009): Chapter 2; Moses(1976): 3. 당시의 평온함은 비단 독일뿐 아니라 유럽 사회주의 세력 전반에 걸쳐 공통된 분위기였다. Haupt(1972): 183 참조.

26) Strachan(2001): 120.

27) Carl Grünberg, “Vor dem Kriege und während der ersten Kriegswochen”, *Die Internationale und der Weltkrieg I*, (Leipzig: C. L. Hirschfeld, 1916):

이러한 방침에 따라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사민당 기관지 『전진(Vorwärts)』은 물론, 뮌헨·라이프치히·드레스덴·마그데부르크·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 등 각지의 사회주의계 언론들은 오스트리아-헝가리가 내부적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전쟁을 감행하려 한다며 그 호전성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였다. 7월 27일에는 베를린을 위시한 독일 주요 도시에서 사민당이 주도한 반전시위가 일어났는데, 7월 28일 10만여 명이 운집한 베를린을 필두로 라이프치히에서 5만 명, 드레스덴에서 3만 5천 명이 시위에 참여하는 등 상당한 세를 과시하였다. 함부르크에서만도 7월 24~29일 간 19차례에 걸친 반전집회가 진행되는 등 7월 31일까지 163개 지역에서 288회의 반전시위가 발생하였고, 8월 2일에는 베를린에서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다.<sup>28)</sup>

한편 자유노련 기관지 『서신(Correspondenzblatt)』 8월 1일자에는 ‘7월 위기’를 총평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여기서는 열강 간에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노동계급이 될 것이므로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또한 황태자 부처의 피살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오스트리아-헝가리는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세르비아에 대한 최후통첩은 잘못된 것이므로 제국정부는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제국주의적 야욕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입장이 표명되었다.<sup>29)</sup>

사민당 지도부는 유사시 당 재건의 기반을 마련해두고자 7월 30일 에베르트와 오토 폰 브라운(Otto von Braun)에게 당 자금의 일부

51. 영역된 내용을 Carl E. Schorske, *German Social Democracy, 1905-1917: The Development of the Great Sch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286에서 재인용.

28) Maehl(1959): 179~180; Strachan(2001): 121. 사민당이 주도한 반전 시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Verhey(2000): 52~57 참조.

29) Moses(1976): 2.

를 맡기고 취리히로 망명시켰다. 더불어 7월 31일에는 헤르만 뮐러(Herman Müller)를 파리로 급파하여 프랑스 사회당과 양국의 전시 공채 법안을 부결시킬 방안을 조율하는 등<sup>30)</sup> 제국정부의 탄압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하는 한편 임박한 전쟁을 막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었다.<sup>31)</sup>

### 나. '성내평화'의 형성

이렇듯 단호한 반전입장을 취할 듯이 보였던 사민당의 태도는, 러시아 정부가 7월 30일 오후 6시 총동원령을 선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격히 바뀌기 시작하였다.<sup>32)</sup> 7월 31일 『전진』 지에는 “애국심 없는 잡배(雜輩)들[이라 비난받았던 사회주의자들] 역시 의무를 다할 것이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제정 러시아에 대한 ‘방어전쟁’에 사회주의자들이 찬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한편 레긴을 비롯한 자유노련 지도부는 7월 31일 베를린으로 복귀하여, 산하 노조 지도부와 향후 대책을 논의함과 더불어 제

30) Kirby(1986): 28; Schorske(1983): 287~288. 뮐러는 팔레 부르봉(Palais Bourbon)에서 사회당 대표단과 회합하고 양국의 전시공채 모집 반대에 협조키로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31) 제국정부는 사회주의 세력의 초기 반전운동에 비교적 관대한 반응을 보였다. 7월 25일 프로이센 전장상 에리히 폰 팔켄하인(Erich von Falkenhayn)은 사민당의 활동에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지시를 내렸으며, 내무상 클레멘스 폰 델브뤽(Clemens von Delbrück)은 7월 26일 하세와 만난 자리에서 사민당의 시위를 용인하겠노라 밝혔다. 한편 하세는 제2차 인터내셔널 사무국 회의 참석차 칼 리프크네히트(Karl Liebknecht)·룩셈부르크 등과 함께 7월 28~31일간 브뤼셀로 이석하였는데, 그의 직무를 대행한 알베르트 슈데쿰(Albert Südekum)이 베트만-홀베크에게 총파업 계획은 없다고 밝혔음을 고려하면 사민당 역시 확고한 지도력의 부재로 인해 제국정부에 일관된 반전 메시지를 주지는 못했던 것 같다. Strachan(2001): 121~122 참조.

32) Maehl(1952): 40.

국내무성(Reichsamt des Innern)과도 협의를 시도하였다. 레긴은 정국 안정을 당부하는 제국정부의 시책에 따라 정세변화에 동요하지 말고 노조 내부의 단결에 충실하자는 노선을 택하였다.<sup>33)</sup> 8월 1일 자유노련 집행부는 전시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언권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여,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하에 파업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sup>34)</sup> 다음날 자유노련 산하 48개 사회주의 노조의 대표들은 회합을 갖고 영국·프랑스·러시아 3국이 독일 노동계급의 투쟁성과를 파멸시키려 하는 형국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결의하였으며, 전시 임금인상투쟁 및 파업의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성내평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반동적 용커(Junker)와 산업자본가들의 나라였던 독일제국이 순식간에 사회보장제도와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조국’으로 둔갑한 것이었다.<sup>35)</sup>

이러한 자유노련의 태도는 다음날 개최된 사민당 원내대책회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민당 집행부와 원내대표단은 제국정부가 신청한 50억 마르크의 전시

33) Moses(1976): 4.

34) 1890년 이래 자유노련 의장을 역임해온 레긴은 제국정부의 탄압을 피하려는 차원에서 총파업을 정치적 투쟁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반대해 왔으며, 자본주의 체제의 점진적·비폭력적 전환을 지지한 온건파이기도 하였다. Moses(1976): 3 참조.

35) Schorske(1983): 289; Snell(1953): 67; Strachan(2001): 122~123. 다만 모든 노동조합이 전쟁 수행에 협력한 것은 아니었다. 노조의 산업체 직접경영을 추구하였던 독일노동조합자유연맹(Freie Vereinigung deutscher Gewerkschaften)은 전쟁에 대한 협조가 사회주의의 이상과 양립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사민당 및 자유노련의 전쟁 협조를 비판하였다. 다만 그 가맹원수가 6천여 명에 불과하였기에 주류 사회주의계의 찬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 연맹의 활동 및 그 의의에 관한 사항은 Thorpe(2000): 195~216 참조.

한편 이러한 협력의 결과 1915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근로일은 1913년의 5,672,034일 대비 0.12%에 불과한 6,511일을 기록하였다. 개전 첫째 파업에 참가한 영국 근로자들이 345,394명으로 추산된 반면 동시기 독일에서는 10,739명만이 파업에 동참하는 등, 독일 노동계의 전쟁 협조는 타국에 비해서도 독보적이었다. Snell(1953): 74 참조.

공채 발행법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sup>36)</sup> 7월 31일 회의에서는 기권론이 우세한 가운데, 하세의 부결론이 뒤를 잇고 에두아르트 다비트(Eduard David)만 홀로 찬성을 주장하는 형국이었다. 그런데 8월 3일 회의에서는, 원내대표단 6명 중 하세와 게오르크 레데부어(Georg Ledebour)만이 반대를 표명하고 나머지 4명은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다비트는 차르 전제 치하의 민중을 해방하는 ‘성전(聖戰)’에 사민당이 홀로 방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좌중의 분위기를 주도하였다. 결국 전시공채 모집에 대한 찬·반 표결에서 재석 92명 가운데 78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함으로써 사민당의 찬성 당론이 결정되었다.

제1장에서 서술한 하세의 8월 4일 제국의회 발언은 이 당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후일 전쟁 수행에 반대하며 독립사회민주당(Unabhängige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독립사민당’)을 창설하게 된 하세 본인은 물론, 칼 리프크네히트를 포함한 사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동조 하에 전시공채 법안은 통과되었다.<sup>37)</sup>

#### 다. 전쟁 협력의 과실

사회주의 세력의 협력에 따른 대가는 전쟁이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되기 시작하였다. 사민당의 다비트와 막스 코헨-로이스(Max Cohen-Reuß)는 내무상 텔브뤽을 비롯한 제국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신분별 3부제 원칙에 기반한 프로이센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획기적인 제스처’가 필요하다 언급하였으며, 그러한 양보가 불발될 경우 민중의 기대는 분노로 전화될 것이

36) Harmer(2009): Chapter 2.

37) Maehl(1959): 184~185; Strachan(2001): 123.

라 밝혔다. 에베르트 역시 ‘성내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국 정부의 양보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하며, 1915년 1월 샤이데만·레긴과 함께 밀 생산통제, 물가통제, 빵 배급 등의 조치를 내무성에 요구하였다.<sup>38)</sup>

이에 따라 제국정부는 몇 가지 양보를 행하였다. 우선 사민당 출판물에 대한 불온서적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전후 프로이센 선거제도 개혁이 약속되었다. 1915년 3월부터는 빵 배급제도가 시행되었고, 동년 8월에는 ‘결사(結社)에 관한 법률(Reichsvereinsgesetz)’ 개정과 노조의 임금협상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sup>39)</sup>

전쟁이 장기화되며 노동계급의 협력이 절실해지자, 제국정부 관료 및 군부 관계자들이 사민당·노조 간부들과 정책을 논의하는, 전전(戰前)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특히 1916년 8월 팔켄하인의 경질 이후 파울 폰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 원수와 에리히 루덴도르프(Erich Ludendorff) 장군이 주도하는 총참모부(Oberste Generalstab)의 군사독재가 본격화되자, 전 시경제를 군부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와 함께 일련의 사회주의적 정책이 취해졌다. 예컨대 1916년 11월 8일 내무성과 자유노련 지도부 간 회의에서 레긴은 결사권 및 근로조건 보장과 징용된 노동자들의 가족에 대한 보상조치 등을 요구하였는데, 내무성의

38) Harmer(2009): Chapter 2; Kirby(1986): 32. 프로이센 선거권 확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Verhey(2000): 166~173 참조.

39) Moses(1976): 13; Verhey(2000): 169. 다만 제국정부의 이러한 양보는 사회주의 세력의 의도처럼 국내정치의 민주적 개혁을 지향한 것이 아니었다. 베트만-홀베크는 제2제국의 보수적 군주정체를 유지코자 사민당을 회유하려 했을 따름이었다. Egmont Zechlin, “Cabinet versus Economic Warfare in Germany: Policy and Strategy during the Early Months of the First World War,” in H. W. Koch (eds.),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Great Power Rivalry and German War Aims* Second Edition, (London: Macmillan Press, 1984): 268~269 참조.

반대에도 전쟁국(Kriegsamt)의 수장 빌헬름 그뢰너(Wilhelm Groener) 장군의 협조로 이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1916년 12월 6일 발효된 ‘전시근로보조법(Gesetz über den vaterländischen Hilfsdienst)’은 군부와 노조 간 협력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 공장에는 직원들의 근로조건 및 제반 요구사항들을 관리할 ‘노동자위원회(Arbeitskammer)’가 구성되었고, 노·사 간의 분쟁은 군구(軍區)별로 설치될 조정위원회가 중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법의 통과와 함께 자유노련 산하 금속노조연맹 의장인 알렉산데르 쉐리케(Alexander Schlicke)가 프로이센 전쟁성의 고문으로 임명되는 등,<sup>40)</sup> 제국정부의 정책결정에 노조가 일정한 발언권을 보장받기까지 이르렀다.

## 5.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찬전 논리 분석

### 가. 차르 전제정치에 맞선 사회주의 가치 수호

“[러시아 정부가 총동원령을 발포한] 이 순간 이후로 독일 민중은 러시아의 위협에 사로잡힌 셈이다. 민중은 차르 전제정치와 그 병력에 관한 일들을 들을 때마다 독일 강토(疆土)에 발을 내딛는 러시아인들과 그들의 승리가 야기할 후과를 생각하게 된다. 이 같은 공황의 분위기에서 전 독일민족은 조국의 정치·군사 지도부에 유순한 일꾼으로 봉사하게 된 것이다.”<sup>41)</sup>

40) Moses(1976): 13; Thorpe(2000): 200.

41) Vorstand der SPD, *Zur Frage der Verantwortung am WeltKriege*, (Berlin: n.d.): 8. 영역된 내용을 Maehl(1959): 184에서 재인용.

사민당 집행부가 발표한 이상의 성명은, 하세의 8월 4일 제국 의회 발언과 더불어 당시 독일 사회주의자들 간에 보편화되어 있던 제정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샤이데만은 사민주의의 최전선인 독일을 차르 전제정치에 위협으로부터 수호할 책무를 강조하며, 독일 사민주의의 패망은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좌절로 이어지리라고 판단하였다.<sup>42)</sup>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이 유럽문명을 파괴할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던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 역시 반동·야만적인 제정 러시아에 맞선 전쟁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sup>43)</sup> 사민당 내 중도파를 이끌며 당내 단합을 이루는 데 부심하였던 카우츠키도<sup>44)</sup> 8월 28일 『신시대(Die Neue Zeit)』 지에 기고를 내어 “우리는 또다시 유럽의 자유를 위협했던 고래(古來)의 사악한 속적, 차르 전제정치에 맞서 싸우게 되었다”고 하였다.<sup>45)</sup>

42) Maehl(1959): 185~186.

43) 베른슈타인은 폭력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에 부정적이었던 반면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문명화된’ 유럽 국가에 의한 식민지배는 용인하였었다. 그러나 1911년 제2차 모로코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고, 제국주의 간 경쟁에 의한 파멸적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깊이 염려하게 되었다. 그는 초기 전쟁 수행에는 찬성하였지만 이후에는 반전 입장으로 돌아서서 칼 리프크네히트 등과 함께 독립사민당 결성에 참여하였다. Roger Fletcher, “Revisionism and Militarism: War and Peace in the pre-1914 Thought of Eduard Bernstein,” *Militärgeschichtliche Mitteilungen*, Issue 1(January 1982): 23~30 참조.

44) David W. Morgan, “The Eclipse of Karl Kautsk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30, No. 1(1989): 59. 8월 3일 사민당 원내대 책회의에서 그가 제시한 기권론이 거부되자, 카우츠키는 차선책으로 일체의 침략적 목표를 부인하는 조건 하에 전시공채 모집을 찬성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압정(壓政)에도 거부감을 갖고 있었지만, 차르 전제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이를 능가한 것이었다. Massimo Salvadori, *Kautsky e la Rivoluzione Socialista 1880-1938*, translated by Jon Rothschild, *Karl Kautsky and the Socialist Revolution 1880-1938*, (London: NLB, 1979): 182~184 참조.

45) Karl Kautsky, “Die Sozialdemokratie im Krieg,” *Die Neue Zeit*, Vol. 33, No. 1(1914): 7. 영역된 내용을 Maehl(1959): 188에서 재인용.

한편 유력한 사회주의 이론가였던 알렉산데르 파르부스(Alexander Parvus)는, 차르 전제정치의 승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대 타격으로 자본주의적 착취를 가속화할 것이나, 러시아의 패배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혁명을 유도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는 헝가리와 불가리아의 사회주의계 잡지에 실린 〈차르 전제정치에 반하여 민주주의를 옹호함(Für die Demokratie gegen den Zarismus)〉 제하의 기사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여태껏 힘겹게 이룩해놓은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차르 전제정치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해니쉬 또한 독일 사회주의의 독보적인 이론·조직적 공헌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승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6)</sup>

‘러시아의 승리는 곧 독일 사회주의에 대한 압제’라는 렌쉬의 표현은, 이미 고인(故人)이 된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나 빌헬름 리프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 아우구스트 베벨(August Bebel) 같은 저명한 사회주의 지도자들도 공유하던 명제였다.<sup>47)</sup> 특히 사민당과 자유노련이 전 유럽의 사회주의를 선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독일 무산자들의 패배는 유럽 전역의 무산자 및 사민주의의 실패와 등치되었다.<sup>48)</sup> 러시아의 폭압적 지배로부터 독일 사회주의가 달성한 성과를 지켜내야 한다는 논리는 세계대전을 ‘방어전쟁’으로 인식케 하여, 사회주의자들이 국제평화주의의 대의에 배치되는 전쟁 수행에 협력할 수 있는 길을 틈워주었다.

46) Macnair(2013): 368; Thorpe(2000): 209.

47) 가령 베벨은 1891년 에르푸르트 회의에서 제정 러시아를 ‘잔혹함과 야만의 본산’이요 ‘인류 문명의 공적(公敵)’이라 비난한 바 있었다. Harmer(2009): Chapter 2 참조.

48) Maehl(1959): 183; Strachan(2001): 121.

### 나. '유산자' 대영제국에 대한 '무산자' 독일의 투쟁

이상과 같은 대(對)러시아 '방어전쟁'의 인식 외에도, '금권제국(金權帝國)' 영국에 대한 '무산제국' 독일의 혁명이라는 견지에서 전쟁 협력이 정당화되는 논리도 찾을 수 있다. 다비트와 코헨-로이스 등으로 구성된 사민당 우파 세력은 세계시장과 식민지에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영국을 국제사회에서의 '유산자'로, 독일은 이에 대항하는 '무산자' 국가로 상정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렌쉬와 게르하르트 힐데브란트(Gerhard Hildebrand) 등은 사민당 개량주의의 입장을 대변하던 『월간 사회주의(Sozialistische Monatshefte)』 지를 통해 영국에 맞선 '유산자' 독일의 혁명이 실패할 경우 전 유럽의 무산자 민주주의가 파탄될 것이라며 영·독 대립을 정당화하였다.<sup>49)</sup> 자유노련 역시 제국정부에 완전 고용상태 유지를 요구하면서, 그 근거로 독일 경제의 파탄을 피하는 영국의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고용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을 들었다.<sup>50)</sup>

한편 1910년 11월부터 1915년 초까지 이스탄불에 체류하던 파르부스에게도 영국을 의식하는 시각이 관찰된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채권(債權) 통치'를 목도하며 영제국주의가 작동하는 현실을 파악한 그는, 어느 국가도 피해갈 수 없는 자본주의적 모순의 대립이 영·독 갈등으로 귀착되었다 판단하였다. 파르부스는 독일을 고립시키고자 '3국협상(Triple Entente)'에 합류한 영국의 공세로 인해 전쟁은 불가피해졌다고 보았다. 그리고 독일의 승전을 통해 오스만 투르크가 영국·프랑스와의 채권관계를 청산하고 러시아의 야욕을 막을 수 있으리라 주장하며 독일에 일종의 '해방자' 역할을 부여하였다.

49) Maehl(1959): 181, Footnote 2.

50) Moses(1976): 7.

렌쉬 또한 1915년 1월 발표한 『독일 사민주의와 세계전쟁: 정치적 연구』라는 팸플릿에서 독일이 금권적 의회국가에 머물러 있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발전된 형태의 자본주의 및 국가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에 보다 근접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행 중인 전쟁은 영국·프랑스가 유산자의, 독일이 무산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계급투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sup>51)</sup>

#### 다. ‘전시사회주의’ 달성을 통한 노동계급의 권익 향상

자유노련 기관지 『서신』은 1914년 9~10월간 ‘전쟁과 사회적 책무(Der Krieg und die sozialen Pflichten)’라는 주제의 기획 기사를 통해 독일이 전쟁에 이겨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사회의 단결을 촉진하고 각 계급의 잠재력을 각성시킨다는 전쟁의 순기능이 강조되었다. 전쟁은 사회를 통합시키고 구성원들의 책임감을 고양시킴으로써, 특정 개인이나 계급만의 사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바라보게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따르면 세계대전을 통해 계급투쟁이 종언을 고하고, 파편화된 ‘시민(Bürgers)’ 대신 조국 수호의 일념 아래 단결한 ‘동포(Volksgenossen)’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었다.

총력전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급의 협력이 불가결한 만큼 노동계급은 국가에 협조해야 하며, 국가는 그 반대급부로 노동계급의 권익과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서신』의 논리였다. 자유노련 지도부에 의하면 그들의 전쟁 협조는 지배계층에의 투항이 아니라, 역으로 조국 방위의 대의 아래 조직화된 노동력의 유용성을 인식한 제국의 통치자들이 노

51) Macnair(2013): 365~368 · 371~372.

조의 요구에 양보한 결과였다. 노동계급을 ‘국민(Volk)’이라는 단일 국가공동체의 어엿한 성원(成員)으로 위치시키려는 희망이, 사민당과 자유노련이 ‘성내평화’에 동의하게 된 기저(基底)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쟁 수행에 협조함으로써 제2제국의 폭압성을 줄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 역시 찾아볼 수 있다. 1914년 11월 14일 베를린 노조위원회가 제국정부와 군부의 대표자들을 초청한 것은, 사회주의 세력의 협조가 불가결한 것임을 지배계급에 각인시킴으로써 그들로부터 사회주의적 진전을 위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sup>52)</sup>

이러한 맥락에서 레긴과 자유노련 지도부는 ‘전시사회주의(Kriegssozialismus)’ 개념을 내세우며 전쟁 협조를 정당화하였다.<sup>53)</sup> 이들은 노동계급을 동원할 수 있는 노조의 조직력이 날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전시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당시 상황이야말로 사회주의 달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는 과정이라 생각하였다.<sup>54)</sup>

윈스터 대학교의 교수로 ‘1914년 정신(Ideen von 1914)’이라는

52) 이상 Moses(1976): 4~7. 다만 모세는 이러한 인식이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제국정부는 분명히 일정 수준의 양보를 행하였으나,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도 자신들의 사익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노조의 전향적 태도에 재계가 냉담하게 반응하면서 그들이 당초 희구하였던, 자본계급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53) ‘전시사회주의’는 렌쉬가 1915년 2월 5일자 『전진』지에 게재한 논설에서 만들어진 조어(造語)로, 근대적 총력전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를 통제하는 상황을 지칭하였다. 이 개념은 정치적 민주화와 노동계급의 집권을 사회주의 실현의 선행요건으로 본 베벨·카우츠키의 판단과 달리, 국가의 영향력 확대 자체를 사회주의적 전환의 계기로 삼은 발상이었다. 이 개념은 1차대전기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전쟁 협조 논리에 동원되었던 것은 물론,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계획경제 수립과 2차대전기 영국의 경제계획 설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Macnair(2013): 372·374; Stefan Vogt, “The First World War, German National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German Zionism,” *Leo Baeck Institute Year Book*, Vol. 57(July 2012): 286 참조.

54) Moses(1976): 9~10.

표현을 고안한 요한 플렌게(Johann Plenge)도 독일 특유의 관료 체제와 경제적 조직화를 통해 ‘국가적 사회주의(Staatssozialismus)’가 달성되었다 주장하고<sup>55)</sup> 이를 프랑스 대혁명에 준하는 유럽사의 일대 분기점이라 평가하였다. 그는 또한 노조의 동원력과 규율을 찬탄하며 이들의 초(超)분파적 단합이 전쟁 수행은 물론 전후 복구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렌쉬 역시 ‘1914년 정신’을 통해 프랑스식 자유방임(laissez-faire)·개인주의와 영국식 자본주의가 사라지고 독일식의 조직·계획·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가 승리함으로써 국가적 사회주의가 이룩될 것이라 주장하였다.<sup>56)</sup>

특히 상술한 ‘전시근로조법’의 제정은 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전시사회주의’의 도래가 임박하였다는 인상을 가지게 하였다. 『전진』은 동법을 국가적 사회주의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라 상찬(賞讚)하며 정치·군사적 부문에서 ‘프로이센식 사회주의’가 형성되고 있다 평하였다. 금속노조연맹 기관지 『금속노동자회보(Metallarbeiter-Zeitung)』 역시 1916년 11월 25일자 기사에서 동법을 ‘가장 강력한 전시사회주의 조치’로 칭송하며 전시경제 하에서의 규율과 총화(總和)가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결정적 진보가 됨을 주장하였다.<sup>57)</sup>

## 라. 세계혁명에 대한 기대

열강의 전쟁이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촉진하리라는 생각은 기실 제2인터내셔널의 일부 급진파들 간에 공유되던 인식이었다.

55) 본고에서는 나치스(Nazis)가 추구한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와의 구별을 위해 ‘Staatssozialismus’를 ‘국가적 사회주의’로 옮겼다.

56) Moses(1976): 7; Verhey(2000): 132·168.

57) Harmer(2009): Chapter 2; Snell(1953): 71~72; Thorpe(2000): 200.

이들은 자본주의의 최종단계인 제국주의가 대전을 통해 파멸함으로써 각국에서 계급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전망하였다. 전쟁은 사회의 근본적 변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조기에 혁명을 유도하려면 각국의 군국·제국주의가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고무되어야 했다.<sup>58)</sup>

렌쉬는 앞서 언급한 『독일 사민주의와 세계전쟁: 정치적 연구』에서 세계전쟁이 곧 세계혁명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파르부스는 1915년 4월 율리우스 마르토프(Julius Martov)와 트로츠키에게 띄운 공개서한에서, 전쟁으로 야기될 국가권력의 재조정과 같은 정치적 변화가 무산자 계급투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사민주의자들이 전쟁 수행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 결과를 무산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1915년 9월 발표된 <독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의 보루(堡壘)> 제하의 비평에서도 유사하게 표명되었는데, 파르부스는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을 막지 못한 판국에서 무산자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은 세계전쟁을 지지하며 이를 사회주의 실현에 활용하는 것이라 밝혔다.<sup>59)</sup>

## 6. 협력의 결과: 사회주의계의 분열과 반성 없는 복귀

전전 사회주의계의 ‘가장 반짝이는 보석’으로 칭송받던 사민당과<sup>60)</sup> 자유노련은 독일의 전쟁 돌입을 막지는 못할지언정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었으며, 국제사회주의 신조를 굳건히 지켜줄

58) Kirby(1986): 33; Strachan(2001): 113.

59) Macnair(2013): 365~371.

60) Kirby(1986): 39.

것으로 기대받고 있었다.<sup>61)</sup>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주의적 ‘선의(善意)’에 따라 독일 사회주의계는 노동계급 연대에 기초한 국제평화주의 대신 전쟁에 협조하는 길을 택했는데, 그 결과로 이후 독일사의 향방을 바꾸게 될 사회주의계의 분열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였다.

사민당의 분열은 1914년 12월 2일 개최된 제국의회에서 칼 리프크네히트가 제2차 전시공채 추가모집안에 부표(否票)를 던지면서 시작되었다. 하세와 카우츠키는 1915년 6월 사민당 집행부의 노선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1916년 3월에는 레데부어와 빌헬름 디트만(Wilhelm Dittmann) 등 제국정부의 전시공채 모집에 반대한 사민당 좌파 의원 18명이 출당 조치되었다. 이들이 1917년 4월 5일 독립사민당을 결성함으로써 독일 사회주의 정당의 단일대오는 깨어지게 되었다.<sup>62)</sup>

그런데 독일 사회주의계가 나름의 지향을 갖고 전쟁 수행에 협력했음에도, 세계대전 발발의 책임은 빌헬름 2세와 군부에게

61) Strachan(2001): 117. 사민당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수상 집권기의 비법화(非法化)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100만 여명의 당원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자유노련 역시 1912년 기준 약 250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사민당은 특히 1912년 제국의회 총선거에서 유권자 투표의 35%에 육박하는 425만 여 인의 득표수를 기록하여 재적 397석 중 110석을 차지, 제국의회 제1당으로 부상하는 등 전 유럽에서 가장 잘 조직화된 사회주의 정당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었다. Chickering(1998): 7; Dittmar Dahlmann, “Parliament,” in Jay Winter and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f the Historial de la Grande Guerre (eds.): 44; Maehl(1959): 183 참조.

62) 1914~17년 사민당의 분리과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경위는 Chickering(1998): 154~159; Kirby(1986): 45~49; Schorske(1983): 300~320 참조. 이와 함께 사민당과 자유노련 가맹원수도 급격한 저하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16년 3월 기준 사민당원은 전전의 6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자유노련 가입자수는 1914년 상반기 251만 1천 명에서 1916년 기준 96만 7천 명으로까지 급감하였다. Kirby(1986): 58; Jürgen Kocka, *Klassengesellschaft im Krieg: dt. Sozialgeschichte 1914-1918*, (Göttingen: Vandenhock und ruprecht, 1973): 56 [Moses(1976): 1에서 재인용] 참조.

전가되었을 뿐 사민당과 자유노련은 별다른 반성이나 자아비판 없이 전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었다.<sup>63)</sup> 개전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에 대한 잠수함 봉쇄작전을 ‘존재를 위한 싸움’으로 옹호했던 에베르트는<sup>64)</sup> 빌헬름 2세 퇴위 후 과도정부 수상과 신생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하였다. 동부전선에서의 러시아군 패퇴를 ‘혁명적’인 것으로 격찬하며 러시아의 방대한 영토를 분리시키는 데 찬성한 샤이데만은<sup>65)</sup> 대통령에 취임한 에베르트로부터 공화국 초대 수상직을 물려받았다. 샤이데만의 후임 수상으로 베르사유 강화조약에 서명한 이는 자유노련의 부의장으로 전쟁에 협조하였던 바우어였다.

한편 전쟁 후기 반전을 내세우며 독자적 활동을 펼친 독립사민당은 스파르타쿠스단(Spartakusbund)을 중심으로 1919년 1월 독일공산당(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을 조직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위 ‘1월 봉기(Januaraufstand)’는 우익의 ‘자유군단(Freikorps)’까지 동원한 에베르트 과도내각에 의해 철저히 진압되었고, 리프크네히트·룩셈부르크 등의 핵심 간부들은 잔혹하게 피살되었다. 이로써 사민당과 공산당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양당의 불화는

63) 1919년 바이마르 의회에서 사민당은 재적 423석 중 165석을 확보하여 원내 제1당이 되었는데, 당선자들 중 54.5%가 노조에 몸담은 전적이 있었으며 32.7%는 간부 출신으로 노조의 영향력은 전전에 비해 더욱 확대되었다. Snell(1953): 75 참조.

64) Harmer(2009): Chapter 2.

65) Maehl(1959): 187·189. 샤이데만뿐 아니라 다비트·쿠노·해니쉬·레긴·코헨-로이스 등 사회주의계의 다수 지도자들이 동부전선의 승리를 통한 러시아 제국의 해체와 차르 체제의 전복을 회고하고 있었다. 당시 제국정부는 이러한 사회주의계의 희망을 더욱 고무시켜 러시아와의 강화협상에 활용하고자 했는데, 이는 국제정치학에서 유명한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의 ‘양면게임(two level game)’론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라 하겠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혼란과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 대두에 적잖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sup>66)</sup>

## 7. 결론에 대신하여: 본고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주의 가치의 수호와 실현이라는 ‘선의’에 기반하여 전쟁 수행에 협력했던 독일 사회주의자들은, 오히려 사민당의 분열이라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사회주의의 도래까지 야기한— 역설적 상황을 맞이하였다. 다만 본고는 제5장에서 정리된 네 가지 범주의 ‘적극적’ 사고가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찬전을 결정지은 전적인 사유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기해둘 필요가 있겠다. 제국정부와 군중심리의 위협에 따른 ‘피동적’ 상황이나 독일 사회주의계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던 제국주의적 팽창 욕구에 따른 ‘악의적’ 이유가 전쟁 협력의 배경에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sup>67)</sup> 또한 연구자 역량의 한계로 독일어로 쓰인 1차 사료를 참고하지 못하고 영문 2차 문헌에 의지하였기에, 본고의 서술이 당시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인식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고는 감히 단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그들의 전쟁 협력 논리 속 사회주의적 지향

66) Snell(1953): 75~76.

67) 실제로 독일노동조합자유연맹의 기관지 『선구자(Der Pionier)』와 『단결(Der Einigkeit)』은 반전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폐간되었으며, 『뮌헨 포스트(Münchener Post)』를 위시한 사회주의계 매체나 쿠르트 아이즈너(Kurt Eisner) 등 사민당 간부들에 대한 습격이 시도되면서 물리적 탄압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었다. 모세 역시 1914년 7월 31일 계엄령이 반포되어 군부가 실질적 행정권을 행사함에 따라, 제국의회를 통한 전쟁 비판마저 탄압을 면치 못했으리라 보았다. Maehl(1959): 179; Moses(1976): 6; Thorpe(2000): 197~198 참조.

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시도는 일말의 학술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생각된다.

후속 연구의 방향에 관하여, 사회주의적 ‘선의’에 입각한 협력론이 여타 국가의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작용하였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와 흡사하게 1914년 7월 말까지 반전 입장을 확고히 하던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은 8월 3일 독일의 대(對)프랑스 선전 이후 ‘신성연합(Union Sacrée)’의 기치 아래 돌연 전쟁에 협력하게 되었다. 이때 프랑스 중의원 의원이자 사회당 기관지 『인류(L’Humanité)』의 편집장이었던 장 조레스(Jean Jaurès)는 7월 29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차 인터내셔널 사무국 회의에서 전쟁으로 야기될 비참한 생활과 압제가 민중을 각성시켜 사회주의를 현실화시키리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sup>68)</sup> 조레스는 이틀 후인 7월 31일 우익분자에게 피살되어 이후의 ‘신성연합’ 형성에는 관여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식의 사고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의 전쟁 협력에 작동하고 있었는지, 작동하지 않았다면 어떤 점에서 독일의 사례와 차별성을 띠는지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더불어 모세의 지적을 발전시켜<sup>69)</sup> 독일 사회주의 세력의 전쟁 협조가 전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적

68) Haupt(1972): 221. 7월 15~16일 간 열린 프랑스 사회당 대회에서는 반전 입장을 확인하며 그 수단으로 국제적 수준의 총파업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프랑스 노동자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또한 제국주의적 전쟁에 대한 전면 거부를 언명하였고,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반전집회를 실시하였다. Herreros(2003): 330·332 참조. 한편 독일의 ‘성내평화’에 비견되는 ‘신성연합’의 구호는 8월 4일 르네 비비아니(Rene Viviani) 수상이 중의원에서 대독한 레몽 푸앵카레(Raymond Poincaré)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언급된 표현이다. Dahlmann(2014): 50~53; Stig Förster, “Civil-military relations,” in Jay Winter and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f the Historial de la Grande Guerre (eds.): 97 참조.

69) Moses(1976): 2.

경로를 추적해보는 일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독일 노동계급이 보여주었던 국가적 사회주의에 대한 친연성은 이후 국가사회주의가 횡행하게 된 주요한 배경으로 지적되는 만큼,<sup>70)</sup> 당시 독일 사회주의계의 선택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새롭게 위치시키는 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끝으로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선택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유럽사를 규정지은 양대 축인 ‘전쟁’과 ‘혁명’의 상호작용이라는 견지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석명하는 것도 흥미 있는 주제가 될 터이다. 가령 사민당과 자유노조 주류가 ‘전쟁’에 합세함으로써 ‘혁명’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라 추단(推斷)했다면,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화시키자’는 레닌의 ‘이중격파론(dual-defeatism)’<sup>71)</sup> ‘전쟁’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실현시키자는 논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혁명’으로 대변되는 국내정치와 ‘전쟁’이 상징하는 국제정치가 근대 유럽에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왔고 당대 지성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다루어야 하기에, 역사학은 물론 군사학이나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다루어볼 만한 문제라 생각된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10주년이 되는 2024년의 시점에서, 본고가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후속 작업을 위한 하나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하며 결론에 대신한다.

70) Snell(1953): 75~76. 스넬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연구로 에딩거(Lewis J. Edinger), 스투름탈(Adolf Sturmthal), 앤더슨(Evelyn Anderson), 로스펠스(Hans Rothfels) 등의 성과를 꼽았다.

71) Macnair(2013): 373.

### 〈참고문헌〉

- Lenin, Vladimir Ilych.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남상일 譯, 『제국주의론』. 1986. 서울: 백산서당.  
\_\_\_\_\_, *Collected Works*. 양효식 譯, 『레닌 전집 제59  
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2017. 파주: 아고라.
- 황동하. 2014. “제1차 세계대전기 독일 사회민주당의 ‘방어전쟁’과 로자  
록셈부르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1권 제3호: 12-39.  
<http://doi.org/10.26587/marx.11.3.201408.001>
- Ceadel, Martin. 2014. “Pacifism.” in Jay Winter and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f the  
Historial de la Grande Guerr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 Volume II: The Sta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ickering, Roger. 1998. *Imperial Germany and the Great  
War, 1914-191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hlmann, Dittmar. 2014. “Parliament.” in Jay Winter and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f the Historial de la Grande Guerr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 Volume II:  
The Sta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etcher, Roger. 1982. “Revisionism and Militarism: War and  
Peace in the pre-1914 Thought of Eduard Bernstein.”  
*Militärgeschichtliche Mitteilungen*, Issue 1.
- Förster, Stig. 2014. “Civil-military relations.” in Jay Winter  
and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f the Historial de la Grande Guerr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 Volume II:  
The Sta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gory, Adrian. 2014. *A War of Peoples 1914–191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rmer, Harry J. P. 2009. *Makers of the Modern World: Friedrich Ebert — Germany*. London: Haus Publishing.
- Haupt, Georges. 1972. *Socialism and the Great War: The Collapse of the Second Internationa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errerros, Francisco. 2003. “The Dilemma of Social Democracy in 1914: Chauvinism or Social Dilemma?.” *Rationality and Society*, Vol. 15, No. 3.
- Kirby, David. 1986. *War, Peace and Revolution: International Socialism at the Crossroads 1914–1918*. Aldershot: Gower.
- Lih, Lars T. 2014. “The New Era of War and Revolution: Lenin, Kautsky, Hegel and the Outbreak of World War I.” in Alexander Anievas (eds.), *Cataclysm 1914: The First World War and the Making of Modern World Politics*. Leiden: Brill.
- Macnair, Mike. 2014. “Die Glocke or the Inversion of Theory: From Anti-imperialism to Pro-Germanism.” *Critique*, Vol. 42, No. 3.
- Maehl, William. 1952. “The Triumph of Nationalism in the German Socialist Party on the Eve of the First World War.”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24, No. 1.
- \_\_\_\_\_. 1959. “The Role of Russia in German Socialist Policy, 1914–18.”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Vol. 4, Issue 2.
- Morgan, David W. 1989. “The Eclipse of Karl Kautsk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30, No. 1.
- Moses, John A. 1976. “Bureaucrats and Patriots: The German Socialist Trade Union Leadership from Sarajevo to Versailles, 1914–1919.” *Labour History*, No. 30.

- Salvadori, Massimo. *Kautsky e la Rivoluzione Socialista 1880–1938*, translated by Jon Rothschild, 1979. *Karl Kautsky and the Socialist Revolution 1880–1938*. London: NLB.
- Schorske, Carl E. 1983. *German Social Democracy, 1905–1917: The Development of the Great Sch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nell, John L. 1953. “Socialist Unions and Socialist Patriotism in Germany, 1914–1918.”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59, No. 1.
- Strachan, Hew. 2001. *The First World War Volume I: To Ar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horpe, Wayne. 2000. “Keeping the Faith: The German Syndicalists in the First World War.” *Central European History*, Vol. 33, No. 2.
- Verhey, Jeffrey. 2000. *The Spirit of 1914: Militarism, Myth and Mobilization in Germa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ogt, Stefan. 2012. “The First World War, German National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German Zionism.” *Leo Baeck Institute Year Book*, Vol. 57.
- Zechlin, Egmont. 1984. “Cabinet versus Economic Warfare in Germany: Policy and Strategy during the Early Months of the First World War.” in H. W. Koch (eds.),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Great Power Rivalry and German War Aims* Second Edition. London: Macmillan Press.
- “Presentation of Kautsky–1914.” 1970. *New Left Review*, No. 59.

<Abstract>

## How German Socialists Came to Support 'the Great War': The Irony of Socialist 'Goodwill' and Their Proactive Cooperation on War

Ko Yong-jun

This article purports to revisit how German socialists came to support the Great War in 1914 despite their fierce antagonism against capitalist wars, based on secondary literature written in English. Conventional wisdom tends to explain it with a focus on either 'misjudgement and betrayal' against socialist ideals or 'resignation and passivity' caused by belligerent social atmosphere. In this article, however, I present some evidences for the logic of proactive cooperation on the war conceived by the leaders of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SPD) and the Free Labor Unions, both of which were most influential organizations of German socialism. They can be analyzed into four different categories: first, to protect socialist values against the Czarist despotism; second, to counter the greed of the bourgeois British Empire; third, to promote benefits for labor class by realizing 'wartime socialism'; and fourth, to facilitate socialist revolutions around the world. Ironically, though, such 'goodwill' of German socialist leaders which legitimized their collaboration on the war turned out to result in not only the schism of socialist forces but also the emergence of the Nazist 'Third Reich' in the interwar Germany,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critical juncture in the nexus of 'revolution' and 'war' in modern European history.

Keywords : The First World War,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Burgfrieden, Wartime Socialism

